고(故) 김범식 교수를 추모하면서

2021년 12월 2일에 서울대학 수학과 동창회로부터 고등과학원(KIAS) 김범식 교수가 서거했다는 비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KIAS 박진성 교수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문의하였는데 박 교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천안으로 문상을 하러 가는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코로나 기간이라 천안으로 조문하러 가지 못하고 집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김 교수의 명복을 빌었다. 언젠가 김 교수에 대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김 교수를 추모하는 글을 대한수학회 소식지에 투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과 유학시절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추모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월 말 경에 조선대학 김진홍 교수를 만나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는 중에 김 교수가 김범식 교수와 학번이 동일한데다가 미국 UC Berkeley 캠퍼스에서 함께 유학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교수가 김범식 교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믿게 되어 김 교수에게 추모사를 쓰길 제안하였다.

1999년 ~ 2021년 기간 김범식 교수와 나와의 여러 학술활동과 인간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1996년 12월 2일 (월) ~ 12월 19일 (목) 기간 일본 경도대학 수리해석연구소(이하 RIMS)에서 [Calabi-Yau manifolds and Mirror symmetry] 등 3개의 workshop 이 개최되었다. 나는 조직위원장인 모리(Shigefumi Mori, 1951~) 교수의 초청으로 강연(제목 : Some geometric aspects in the theory of Jacobi forms of higher degree)을 하였다. 김 교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Alexander Givental(1958~)도 초청강연(제목 : Mirror theorems for flag manifolds and toric complete intersections)을 하였다. 그는 강연 중간에 그의 제자인 김범식 교수의 quantum cohomology 에 관한 연구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다가가 김범식이 한국인 같은데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김범식은 자신의 제자이며 그해 5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나는 만나지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김 교수를 알게 되었다. 김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은 [Gromov-Witten Invariants for Flag Manifolds]이다.

김 교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1986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수학 학사, 1996년 UC Berkeley 박사학위 취득, 1996 ~ 1997 년 스웨덴 미타그레플러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 1997~ 1999 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에서 조교수, 1999 ~ 2003 년 포항공과대학교 부교수, 2003 ~ 2021년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를 역임하였다.

2000년 6월 1일 ~ 6월 2일 양일간 김 교수의 초청으로 나는 포항공대에서 4 차례 강연을 하였다. 강연제목은 [Frobenius Manifolds and Mirror Symmetry] 이다. 그리고 2002년 2월 2월 5일 ~ 2월 6일 양일간 인하대학에서 나는 조그만 세미나 (주제 : Representation Theory of Lie Groups and Automorphic Forms) 를 개최하면서 김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였다. 김 교수는 [Whittaker Functions and Equivariant Mirrors for Flag Manifolds] 의 강연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이 끝난 후에 나는 토쿄대학 교수인 일본 수학자 Takayuki Oda 의 Whittaker 함수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그 후 김 교수는 Oda 교수와 학술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갔다. 나는 김 교수를 인하대학 수학과 콜로키움 연사로 수차례 초청하였다. 2004 년에 나의 저서 [20 세기 수학자의 만남] (경문사 2004 년) 의 개정판에 김 교수는 [추천하는 글] 을 헌사하였다. 한번은 인하대에서 초청강연이 끝난 후 서울 목동에 있는 현대 41 타워의 41 층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한강 주변의 야경을 즐기면서 재미있는 담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가끔 KIAS 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틈을 내어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김 교수가 청암상을 수상했을 때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겸손하게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수상하게 되었다고 부끄러워했다. 서로가 연구하는 분야가 달라 학문적으로 교류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이메일로 연락 하든가 또는 직접 만나 가벼운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2013년 11월 14일 (목) ~ 15일 (금) 양일간 열린 나의 회갑 학술회의에서 11 월 15일에 흥미로운 초청강연을 하였다. 강연제목은 [평면 + 무한대 점 + 무한소 점] 이다.

김 교수는 나와 14년의 나이 차이여서 그런지 나에게 농담 따위의 말은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고 과묵한 편이었다. 친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학문적인 대화를 할 때는 다소 적극적이었던 면이 있었다.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말할 때 점잖고 약간 어눌한 면이 있었다. 정확한 날은 기억은 못하지만 언젠가 김 교수는 아들이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에 합격해 송도 캠퍼스에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기

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나도 나의 딸, 아들, 사위, 며느리가 모두 연세대학을 졸업했다고 맞장구치면서 함께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김 교수가 심근경색으로 서거하기 약 2 개월 전인 2021년 10월 5일에 이메일로 거울대칭 (mirror symmetry) 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해 12월 2일에 서울대학 수학과 동창회로부터 갑작스럽고 황당한 비보를 받아 애통해 했다. 코로나 기간이라 천안의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지 못했다. 2022년 9월 19일 ~ 23일 기간 KIAS 에서 김 교수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나는 추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김진홍 교수를 통해 최근에 알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주소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http://events.kias.re.kr/h/SEP22/]

김 박사는 내가 적어도 수학 분야에서는 인정하는 국내 수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비록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지만 김 교수의 연구업적은 영원히 기억되며 남을 것이다.